

1.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

▷콜롬비아 단기선교: 이번주에 콜롬비아 목회자 티디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아르헨티나 단기선교: 이번주에 아르헨티나 고르도바 AFA#1기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이멜송#2 (브라질 한인2세 TD) - 5/27-6/3, S/L: 송종호 목사, 렉터: 김수영 안수집사, 문의: 로이 김 안수집사(213.999.1737)

▷파라과이 인카운터 2기 - 6/3-6/10, 문의: 노우종 집사 (213.761.3590)

▷필리핀 VBS 2기 및 인카운터 5기 - 6/23-7/3 VBS선교, VBS

팀장: 제키유 전도사, 문의: 이희겸 안수집사(714.337.3091)

▷멕시코선교(VBS, 의료선교) - 6/29-7/6, S/L: 케니박 목사, 팀장: 이재윤 집사, 코디: 김영수 장로, 문의: 조셉한 집사 (714.213.5033)

▷베네수엘라 AFA 10기 - 6/29-7/10,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김희철 안수집사, 문의: 이충렬 안수집사 (562.665.0607)

▷FRESNO 단기선교 - 6/30-7/3, T/M: 매주 토요일 7주간 VC119, 회비: 개인 400/가족800, 문의: 류영선 안수집사 (714.232.3134)

▷쿠바 인카운터, VBS, 청소년 수련회 - 6/30-7/7, S/L: 설성훈목사, VBS팀장: 설수진 목사, 문의: 안재경안수집사 (213.675.5800)

▷파라과이 PTD #1 - 7/13-7/20, S/D: 강충원 선교사, 렉터: 임용환 안수집사, 문의: 김규현

집사(714.502.4399)

▷은혜동산 16기 - 7/19-7/2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상홍 장로,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몽골목회자 TD 1기 - 7/26-8/3, S/L: 한기홍 목사, 렉터: 원용경 장로, 코디: 라병원 장로, 문의: 이한철 안수집사 (858.335.9415), 항공권 사전등록

3.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4.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5.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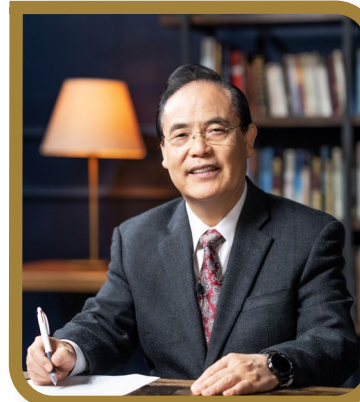
주빌리 구국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2024년 5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5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부흥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임직식 예배로 드러지는데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가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는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기홍 목사님 선교일정

- ▷콜롬비아 목회자AFA(5/5-5/10)
- ▷한국 은혜동산16기 (7/19-7/28)
- ▷몽골 TD 1기 (7/26-8/3)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비가 와서 지체되어 있던 보건소 건축에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하면서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곳이 육신의 회복과 함께 복음 안에서 전인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 안에 십일조 생활이 정착화되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작은 금액부터 큰 농산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농사짓는 성도중 한사람은 옥수수 100KG을 십일조로 내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교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킬레오의 소식을 올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유치원 사역은 올해 2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그 부모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내와 둘이서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면서 만들어진 사역지가 이제 둘만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사역의 장이 넓어졌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된 싱글맘 쉼터에 저희 교회 성도가 첫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새 물건들을 보며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싱글맘 성도와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굳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주일 찬양 연습을 마치면 교회청소를 한 후 축구공을 가지고 저녁까지 놀면서 교회 앞마당을 밟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이루어갑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른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점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올려 드립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테말라 최재숙 선교사
류마티스 관절염에 별 차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박성용 선교사
갑상선 암과 여러 후유증에도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기검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남아공 최정미 선교사
트럭에 추돌되는 큰 교통사고로 몸에 통증이 심하고 계속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허리협착증 디스크로 인해 왼쪽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5-6월에 수술과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정기적으로 CT, MRI 검사 결과, 활동하는 암은 발견되지 않고, 천골에 전이된 암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새로운 항암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면역력과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멕시코

-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

들과 지역 교회들은 월드컵 기간동안 세계에서 몰려 올 약 1억명의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기도하며 전도대 훈련과 실습 등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큰 행사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보다 복음이 밝히 드러나고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산타페 교회가 수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차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을 위해, 또한 주경야독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그들의 신변과 안전 그리고 3월에 있었던 개신교 교단 노회들에서 새롭게 안수 받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시골과 지방에서는 학업과 구직으로 인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두 별도의 장소에서 각200명 규모로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각 교회마다 전도목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이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학교는 이제 2학기가 마

따라 도로 및 재반 시설들이 투자되고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빠르게 열리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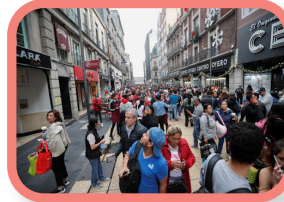
저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 그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옮기게 되어 그곳에서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연장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일에 마음껏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매가 한국으로 떠난 후 동

특히 임선교사가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벤델신학교와 까미노 신학교에서 맡은 강의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세워진 신학교 교수들과 스태프 및 장학회가 잘 운영되어 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무리 되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이 이 땅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와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굳건한 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언니의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생겨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며 놀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무슬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등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εὐσέβεια:유세베이아)

<1분당 127-5월호>

-김대규 장로



우 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무엇일까?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경건이라 할 수 있다. 경건은 기도나 정결, 도덕성을 뛰어 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분께 순복하며 나를 드리고 바치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다. “경건”은 구약에서는 “헤씨드”로 충실한, 친절함, 성자 등의 뜻이며, 신약에서는 “유세베이아(εὐσέβεια)”라고 하는데 공경, 존경, 경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단어가 주는 공통적인 의미는 주를 믿는 자의 내면에 있는 심령의 실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교적 제도나 형식에 의해 거룩한 자태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총체적인 심령과 삶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다.

우 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놓치고 살았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우리는 자아를 잃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사탄에게 속고 산 것이었다.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므로 주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 재가 되어 나는 보이지 않고 주만이 내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개념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서이다. 이래서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과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각인되었을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와야 이루어진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며 이에 따른 행동까지 포함된다. 칼빈은 경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관계성을 말했다.

경 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그에 따른 삶”(마6:3)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 분의 지혜와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건의 실체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다.

경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본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받치라는 명령대로 행하였으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 바로 경건이다. 물론 인간이기에 허물도 있었으나 그의 심령에는 경건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인격과 행동은 한마디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순종으로 경건에 이른 결과인 것이다.

우 리도 경건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죄에서 멀어져 정결케 되고, 세상과 구별 된 거룩함이 함께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인내와 사랑과 순종으로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심령과 행동으로 진실되이 나타나면 된다. 가령 남의 것을 탐한다든가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거나 거짓이나 술이나 마약, 도박, 간음에 젖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됴를 깨닫고 대중이 있거나 홀로 있거나 이에 상관치 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이 드러질 때 이것이 경건인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일 매일 주를 닮아가는 삶이 더해 갈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게 된다. 경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을 살면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참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느냐에 있다.

진 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주께 드러져야 된다. 경건한 자는 주를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금생에 주와 함께 화평한 삶을 살며 내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이 있게 된다(막10:30,딤후4:8). 고로 우리 삶의 현재와 마지막이 경건이어야 한다. 성숙된 경건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경건은 주를 향한 자아의 변화이자 삶의 변화이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다.

캄보디아

- 김영대 조정아 선교사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호 새소망교회의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바로 23, 24호 새소망교회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확장되고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알바니아

-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

알 바니아는 작년부터 유럽의 대체 관광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비수기인 지금도 매달 알바니아 국민의 1/3 이나 되는 80 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관광객들이 유입됨에

